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김 동 욱**

목 차

- I. 서론
- II. 제주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역할
- III.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 IV.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문초록

2006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를 타 국제도시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 산업+첨단산업)을 육성 노력 중에 있으나, 기존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으로 볼 때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본다면 고용 및 생산 측면에서의 비중은 경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 첨단산업의 중심지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도 산업 간에 매우 불균형적이고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산업기반인 농축수산업과 관광업도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인 경우 그 규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여타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논문접수일 : 2008.01.25 / 심사완료일 : 2008.02.11 / 게재확정일 : 2008.02.11

* 2008년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제주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상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재정리한 것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제주중소기업은 전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외에도 제주의 지역적, 경제적 특이성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어, 타 지역의 중소기업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필히 조정하여야 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유통에 대한 혁신 및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 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소기업, 중소기업구조, 중소기업정책

1. 서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제주도를 타 국제도시(싱가포르, 홍콩)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 산업 + 첨단산업)을 육성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수립('98),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06)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이미 제주지역을 동북아 첨단산업의 중심지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도 산업 간에 매우 불균형적이고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산업기반인 농축수산업과 관광업도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인 경우 그 규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여타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현실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지역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층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우리 지역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관건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 중에서 특히 지방중소기업은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방재정 기반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이명박 정부에 요구하는 5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공공구매지원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R&D 지원강화', '중소기업 흡수평채널 확보', '중소기업부 설치'가 있지만 이는 모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은 이와 더불어서 제주지역 지역적, 경제

적 환경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조성 및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제주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역할

1. 중소기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양적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최초의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이 규정된 것은 1961년 7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란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 100인 이하, 광업은 200인 이하이며 총자산은 2천만 원 이하의 규모로 제조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1961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과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이종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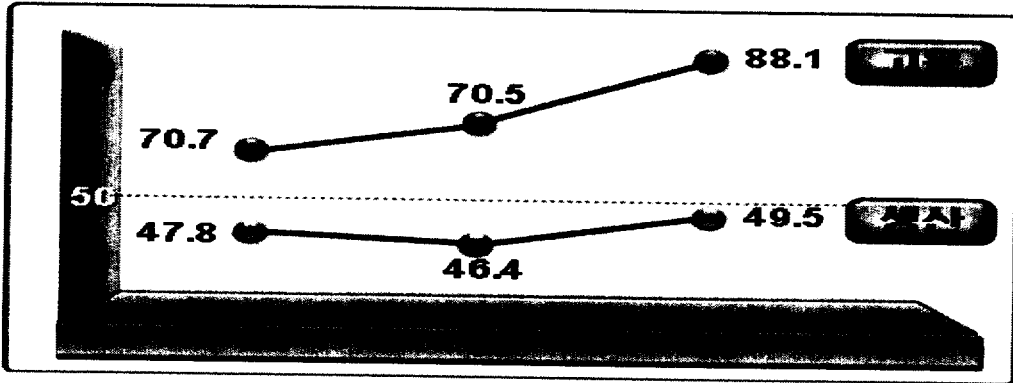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의는 2002년 3월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다(이종은, 2006). 엄밀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자영업과 구별되지만 경제적 환경이나 문제점은 유사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자영업을 포함하기도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업종별 상시종업원수에 따라 정의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광업 제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2. 전국 중소기업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으로 볼 때 대기업에 비해 자본, 매출액, 부가가치, 종업원 수와 같은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본다면 고용수준과 생산수준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비중은 경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약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은 1,077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88.1%, 생산 49.5%, 수출 32.3% 등을 담당 ('05년 기준)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 중소기업의 88.3%(265만개)가 소상공인이며, 소기업 8.5%(26만개), 종업원 50인 이상 증기업은 3.0%(9.2만개) 이중 5인 이상 증소제조업은 12만개로 전체중소기업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중소기업 경제비중 지표



주 : * 생산은 5인 이상 제조업, 고용은 전체 중소기업 기준
 * 전망치는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03)

〈표 1〉 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5년 기준)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	전국	중소기업				기타	
		소기업	증기업	중소기업	기타	비율 (%)	
		3,006,053	2,654,389	2,910,221	91,672	3,001,893	4,160
		(100.0)	(88.3)	(96.8)	(3.0)	(99.9)	(0.1)
	제주	39,634	35,042	38,624	971	39,595	39
		(100.0)	(88.4)	(97.5)	(2.4)	(99.9)	(0.1)
종사자수	전국	12,222,161	5,121,769	7,708,185	3,063,438	10,771,623	1,450,538
		(100.0)	(41.9)	(63.1)	(25.1)	(88.1)	(11.9)
	제주	123,614	66,192	94,595	23,231	117,826	5,788
		(100.0)	(53.5)	(76.5)	(18.8)	(95.3)	(4.7)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 = 소기업 + 증기업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3. 소기업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50인미만, 기타산업은 10인미만

*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05)

3. 제주지역 중소기업현황

1) 기업수 및 종사자수

2006년 기준 전국 사업체수는 3,227,000개, 종사자수는 15,436천명이며, 제주도 사업체수는 43,609개소, 종사자수 176,648명으로 조사 되었다. 도내 기업수는 2006년 말 현재 43,609개는 전년대비 304개소(0.7%)가 증가하였고 전국 3,226,569개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추이 (전국)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2000	3,013,417	2.9	12,604,274	5.3
2001	3,046,554	1.1	14,109,641	3.7
2002	3,131,963	2.8	14,608,322	3.5
2003	3,187,916	1.8	14,729,166	0.8
2004	3,189,890	0.1	14,818,754	0.6
2005	3,204,809	0.5	15,147,471	2.2
2006	3,226,569	0.7	15,435,766	1.9

주 :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표 3〉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추이 (제주)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2000	38,847	4.1	154,005	4.0
2001	40,285	3.8	162,314	6.7
2002	41,756	3.7	173,809	7.1
2003	42,136	0.9	169,787	-2.3
2004	42,531	0.9	167,612	-1.2
2005	43,305	1.8	171,844	2.5
2006	43,609	0.7	176,648	2.8

주 :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6년 기준 전국대비 제주도내 업종별 기업수 비중은 운수업(1.7%), 음식·숙박업(1.4%), 농·어업이 포함된 기타(1.0%) 등이 전체 업종평균(1.4%)을 상회하는 반면,

제조업(0.6%)은 동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1998년 대비 2006년의 도내 업종별 기업수는 운수업(84.6%)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건설업(40.8%), 제조업(30.0%), 음식·숙박업(19.4%) 등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하였다.

〈표 4〉 전국대비 업종별 기업수 비교 (2006)

(개, %)

제조업	340,724 (10.6)	1,562	2,031 (4.7)	0.6	30.0
건설업	90,486 (2.8)	844	1,188 (2.7)	1.3	40.8
도·소매업	865,358 (26.8)	12,010	11,599 (26.6)	1.3	-3.4
음식·숙박업	618,301 (19.2)	8,549	10,210 (23.4)	1.4	19.4
운수업 ¹⁾	343,598 (10.6)	3,204	5,914 (13.6)	1.7	84.6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11,208 (6.5)	1,272	1,850 (4.3)	0.9	45.4
기타 ²⁾	756,894 (23.5)	7,553	10,817 (24.7)	1.0	43.2
합계	3,226,569 (100)	34,994	43,609 (100)	1.4	24.6

주 1) 여행사 및 여행 보조·서비스업 등을 포함

2) 농·어업, 광업, 통신업 등을 포함

()는 업종별 비중

자료: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통계청 KOSIS

2) 산업별 현황

가. 산업별 사업체수

2006년 12월말 현재 제주도 사업체수는 43,609개소로 전년 대비 304개소가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 업종으로는 사업서비스업(13.0%), 통신업(5.0%), 교육서비스업(4.4%), 금융·보험업(3.3%) 순으로 증가했으며, 공공행정(-28.1%), 광업(-13.3%), 오락·문화사업(-5.1%), 농림업(-3.6%) 감소하였다.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를 보면, 도·소매업 11,599개소(26.6%), 숙박 및 음식점업 10,210개소(23.4%)가 전체 사업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수업 5,914개소(13.6%), 기타·개인서비스업 4,754개소(10.9%), 제조업 2,031개소(4.7%) 순으로 나타나 이들 5개 업종의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7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6년 사이 운수업, 부동산서비스업, 건설업종 사업체수가 전 산업 평균 증감률보다 훨씬 높고, 음식·숙박업은 증가 추세가 완만하고, 도·소매업은 업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표 5〉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사업체수		구성비		증감률	
	2005	2006	2005	2006	2006년	2005년
전 산업	43,305	43,609	100.0	100.0	304	0.7
A. 농림업	389	375	0.9	0.9	-14	-3.6
B. 어업	121	122	0.3	0.3	1	0.8
C. 광업	15	13	0.0	0.0	-2	-13.3
D. 제조업	2,016	2,031	4.6	4.7	15	0.7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28	27	0.1	0.1	-1	-3.6
F. 건설업	1,154	1,188	2.7	2.7	34	2.9
G. 도매 및 소매업	11,556	11,599	26.7	26.6	43	0.4
H. 숙박 및 음식점업	10,245	10,210	23.6	23.4	-35	-0.3
I. 운수업	5,788	5,914	13.4	13.6	126	2.2
J. 통신업	119	125	0.3	0.3	6	5.0
K. 금융 및 보험업	552	570	1.3	1.3	18	3.3
L. 부동산 및 임대업	935	955	2.1	2.2	20	2.1
M. 사업서비스업	792	895	1.8	2.1	103	13.0
N. 공공행정	381	274	0.9	0.6	-107	-28.1
O. 교육서비스업	1,689	1,763	3.9	4.0	74	4.4
P. 보건·복지사업	1,084	1,118	2.5	2.6	34	3.1
Q. 오락·문화사업	1,766	1,676	4.1	3.8	-90	-5.1
R. 기타, 개인서비스업	4,675	4,754	10.8	10.9	79	1.7

자료: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통계청 KOSIS

나. 종사자수

2006년 12월말 제주도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76,648,000명으로 전년대비 2.8%(4,804명) 증가하였다.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31,130명(17.6%), 도·소매업 31,054명(17.6%), 교육서비스업 15,027명(8.1%), 운수업 13,026명(7.0%), 기타·개인서비스업 10,780명(6.6%), 공공행정 9,354명(5.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6개 업종의 종사자가 전 사업체 종사자수의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업종별 종사자가 증가한 사업체는 어업(51.4%), 전기, 가스, 수도사업(22.8%), 사업서비스업(20.6%), 건설업(11.9%)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39.1%), 숙박 및 음식점업(-4.3%) 등이 감소하였다.

〈표 6〉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전 산업	167,612	171,844	176,648	100.0	100.0	100.0	4,804	2.8
A. 농림업	4,852	4,366	4,637	2.9	2.5	2.6	271	6.2
B. 어업	1,047	911	1,379	0.6	0.5	0.8	468	51.4
C. 광업	201	230	140	0.1	0.1	0.1	-90	-39.1
D. 제조업	8,044	8,580	8,556	4.8	5.0	4.8	-24	-0.3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83	1,038	1,275	0.7	0.6	0.7	237	22.8
F. 건설업	8,272	9,070	10,148	4.9	5.3	5.7	1,078	11.9
G. 도매 및 소매업	30,706	30,788	31,054	18.3	17.9	17.6	266	0.9
H. 숙박 및 음식점업	32,583	32,520	31,130	19.5	18.9	17.6	-1,390	-4.3
I. 운수업	11,767	12,432	13,026	7.0	7.2	7.4	594	4.8
J. 통신업	1,538	1,489	1,485	0.9	0.9	0.8	-4	-0.3
K. 금융 및 보험업	8,241	8,346	8,493	4.9	4.9	4.8	147	1.8
L. 부동산 및 임대업	2,982	2,828	3,034	1.8	1.6	1.7	206	7.3
M. 사업서비스업	6,060	6,739	8,128	3.6	3.9	4.6	1,389	20.6
N. 공공행정	9,909	9,477	9,534	5.9	5.5	5.4	57	0.6
O. 교육서비스업	13,578	14,561	15,027	8.1	8.5	8.5	466	3.2
P. 보건·복지사업	8,003	9,023	9,543	4.8	5.3	5.4	520	5.8
Q. 오락·문화사업	7,680	8,665	9,279	4.6	5.1	5.3	614	7.1
R. 기타, 개인서비스업	11,066	10,781	10,780	6.6	6.3	6.1	-1	0.0

자료: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통계청 KOSIS

3) 종사자 규모별 현황

가. 사업체수

2006년 기준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의 증감내역은 1~4명(1.1%), 10~19명 (0.3%), 20~49명(7.6%), 50~99명(10.7%), 100~299명(6.3%)의 사업체는 증가하였으나 5~9명 (-4.0%)의 사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성비의 변화를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1~4명의 사업체는 (0.36%p), 20~49명의 사업체는 (0.1%p) 증가하였으나, 5~9명의 사업체는 (0.5%p) 감소하였고, 10~1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의 사업체는 전년과 보합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나. 기업규모

2006년 말 현재 기업규모는 종사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43,590개)이 전체 기업수(43,609개)의 99.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수 10명 미만인 영세한 기업(40,878개)은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는 2006년 기준으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94.2%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는 전국 비율 88%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표 7〉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사업체수	종업원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전 체	42,531	43,305	43,609	100.0	100.0	100.0	304	0.7
1 ~ 4명	36,182	36,217	36,609	85.1	83.6	83.9	392	1.1
5 ~ 9명	3,867	4,448	4,269	9.1	10.3	9.8	-179	-4.0
10 ~ 19명	1,413	1,591	1,595	3.3	3.7	3.7	4	0.3
20 ~ 49명	775	748	805	1.8	1.7	1.8	57	7.6
50 ~ 99명	200	206	228	0.5	0.5	0.5	22	10.7
100 ~ 299명	77	79	84	0.2	0.2	0.2	5	6.3
300명 이상	17	16	19	0.0	0.0	0.0	3	18.8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시도·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

다. 종사자수

〈표 8〉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종사자수	종업원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전 체	167,612	171,844	176,648	100.0	100.0	100.0	4,804	2.8
1 ~ 4명	66,483	65,409	65,335	39.7	38.0	37.0	-74	0.1
5 ~ 9명	24,110	27,662	26,709	14.4	16.1	15.1	-953	-3.4
10 ~ 19명	19,037	21,311	21,463	11.4	12.4	12.2	152	0.7
20 ~ 49명	22,695	22,461	24,433	13.5	13.1	13.8	1,972	8.8
50 ~ 99명	13,120	13,514	15,173	7.8	7.9	8.6	1,659	12.3
100 ~ 299명	12,044	13,035	13,331	7.2	7.6	7.5	296	2.3
300명 이상	10,123	8,452	10,154	6.0	4.9	5.8	1,702	20.1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시도·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

4) 제주지역 규모별 신고 법인수

〈표 9〉 제주 지역 규모별 신고 법인수 (2005)

수입금액 규모별	5억원 미만	153,641	46.1	1,679	56.1
	5억 원	45,439	13.6	387	12.9
	10억 원	47,368	14.2	365	12.2
	20억 원	47,580	14.3	331	11.1
	50억 원	19,923	6.0	122	4.1
	100억 원	15,751	4.7	97	3.2
	500억 원	3,611	1.1	10	0.3
자산 규모별	5억원 미만	171,740	51.5	1,343	44.9
	5억 원	57,369	17.2	643	21.5
	10억 원	41,139	12.3	400	13.4
	20억 원	31,917	9.6	315	10.5
	50억 원	13,005	3.9	110	3.7
	100억 원	12,782	3.8	127	4.2
	500억 원	5,361	1.6	53	1.8
자본금 규모별	5천만원 미만	117,213	35.2	899	30.1
	5천만 원	53,796	16.1	332	11.1
	1억 원	136,333	40.9	1,439	48.1
	10억 원	22,783	6.8	297	9.9
	100억 원	3,188	1.0	24	0.8

자료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06

제주지역에 법인으로 신고된 사업체의 수입금액을 규모, 자산 규모, 자본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수입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5) 어음부도율

제주지역의 2005년 중 어음부도율은 0.42%로 2004년의 0.45%보다 0.03%p 하락하였으나 전국의 어음부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 어음부도 비중은 건설업이 22.2%로 가장 크고, 오락·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8.9%), 제조업(18.5%), 도·소매업(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부도율이 높은 이유는 1989년 이후 건설업 면허개방에 따라 건설업체가 증가하면서 주택물량의 공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코스트를 가중시켰고 제주지역에 대규모 사업부재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향

의 원인이라 사료된다(한국은행, 2006).

〈표 10〉 어음부도율 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1월중
		0.39	0.38	0.11	0.17	0.18	-
	0.46	0.39	0.31	0.48	0.45	-	0.37
	0.25	0.38	0.29	0.40	0.45	0.42	0.43

주 : 연중평균, 어음부도율 = (부도금액 / 총어음교환액) × 100

자료: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

6)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표 11〉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월
		14,129	18,418	24,300	26,180	25,412
	7,991	9,878	12,826	14,833	14,157	14,539
	(56.6)	(53.6)	(52.8)	(56.7)	(55.7)	(55.8)

주 : 농·수협 제외, 잔액기준

()는 총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2005. 11월말 현재 1조 4,539억원으로 2004년 말 대비 382억원 증가하였고 2005. 11월말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55.8%로 2004년 말 대비 0.1%p 증가하였다.

Ⅲ.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1.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경영현황

섬지역이어서 원자재 구입 및 최종재 판매시 타 지역에 비해 추가적인 물류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표 12〉 제주 제조업 비율손익계산서 (2006년 기준)

(단위 : %, %p)

			A-B
매출액	100.0	100.0	-5.1
매출원가	77.4	82.5	5.1
매출총이익	22.6	17.5	5.0
판매비와 관리비	17.2	12.2	0.5
경상개발비·연구비	1.5	1.0	0.5
운반·하역·보관·포장비	2.0	1.6	0.4
급여	4.8	2.8	2.0
복리후생비	0.9	0.4	0.5
영업손익	5.4	5.3	0.1
영업외수익	3.2	4.3	-1.1
영업외비용	4.2	4.0	0.2
이자비용	1.9	1.2	0.7
경상손익	4.4	5.7	-1.3
당기순손익	3.1	4.5	-1.4

자료 : “2006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06년 제주지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제주 제조업에서 운역, 하역, 보관 및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출액 대비 2.0%로 전국 통계인 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지역 제조업 총생산비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제조업 생산비 항목별 비중¹⁾ (2006년 기준)

(단위: %)

	인건비	연료비	전력비	수선비	외주공비	합계
제주	92.5	2.3	2.2	0.4	1.7	100.0
전국	88.1	1.4	1.6	0.3	7.7	100.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산업총조사 (2007)

제주 제조업체의 규모는 전국에 비해 상당히 영세한 편이고 4인 이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전국의 동일 비중인 66%에 비해 매우 높다. 종사자 50인 이상인 중

1) 산업은행의 부가가치 산정방식인 생산액 - 직접생산비(주요 중간투입비) 공식에 의거하여 통계청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생산비를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중간투입비(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공비+수선비)자료를 산출하고 있음

규모 이상의 기업의 수는 총 10개로 전국대비 0.1에 불과하다.

〈표 14〉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업체수 (2006년 기준)

1인이상 4인이하	1,629	80.8%	218,234	64.2%
5인이상 49인이하	375	18.6%	112,323	33.0%
50인 이상	12	0.6%	9,626	2.8%
계	2,016	100%	340,183	10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시도·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 2007)

제주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상당수 및 출하액도 타 지역보다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표 15〉 전국 제조업 부문 5인 이상 기업의 업체당 종사자수 및 출하액(2006년 기준)

(단위 : 명, 억원)

업체당 종사자수	24.4	13.2	18.4	17.6	21.0	28.9	26.9	87.6	23.4	20.6	38.2	42.4	30.0	27.2	36.7	33.6	13.6
업체당 출하액	72.4	19.6	31.1	28.8	49.2	80.3	69.5	66.5	52.7	49.7	105	190	92.8	22.8	16.5	92.9	24.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산업총조사 (2007)

제주 제조업은 중저기술산업 위주이며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주 제조업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중저기술 기반의 산업군이다.

〈표 16〉 OECD 분류에 따른 고기술 및 첨단기술산업 비중

(단위 : %)

지역별 비중	49.3	59.5	22.5	54.1	58.0	42.2	37.8	59.6	39.0	5.2
첨단산업	23.4	36.9	4.2	33.5	25.9	3.0	46.5	46.5	8.6	0.2

주 : 2004년 부가가치액 기준

자료 : OECD, 「STAN Indicators Database」, 2005. 5; 한국은행(2006) 재인용

OECD의 기술집약도에 따른 제조업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별 고기술 및 첨단 기술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 제조업의 5.2%(첨단산업의 경우 0.2%)만이 그러한 산업군에 포함되어 타 지역에 비해 제주 제조업은 현저히 중저기술 위주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 제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도 71.5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09.2백만보다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 제조업은 저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7〉 지역별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액 (200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109.2	69.4	63.2	61.5	75.9	100.8	123.2	206.5	96.9	110.1	119.5	152.2	107.9	230.0	183.6	91.2	71.5
-------	------	------	------	------	-------	-------	-------	------	-------	-------	-------	-------	-------	-------	------	------

주 : 1인당 부가가치액 = 지역별 부가가치액 / 월평균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산업총조사 (2006)

2. 제주지역 중소기업 일반적 문제점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은 타지방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인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등을 극복하는데 애로 사항도 있지만 제주 특유의 중소기업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생산액 기준 제주지역의 농림어업은 전 산업에서의 비중이 18.60%에 해당하며 입지상 계수는 14.40에 이르는 등 제주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생산액 기준 관광산업(음식점 및 숙박 기준)의 입지상 계수는 1.69로 농림어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제주지역 경제는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에 의해 지탱되어 왔으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제주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누려왔던 1차산업 부문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WTO체제, FTA체결과 함께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은 1인당 관광지출액이 큰 외국인 및 신혼여행객의 방문이 줄어드는 등 1970~80년대에 누렸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혼여행객은 급감하고 있으며 수학여행단이나 경로관광이 증가하

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관광지화 되고 있다.

둘째, 하도급체제의 미비이다. 자금력과 기술력 및 산업파급 효과가 큰 모기업의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화된 계열화가 미약하다.

셋째, 판매유통망 미약과 물류비용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다. 영세한 기업 규모와 섬이라서 선박 및 항공외의 대체 운송체계가 없는 지리적 특성으로 거의 자체 판매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전국 판매를 위하여 위탁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물량도 타 지역 항구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증으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한다.

Ⅳ.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및 정보공유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특색 없는 지원이 많다. 중앙에서 주도되던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은 지역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의 주체로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기관(기업지원과)의 조직 및 역할은 지역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 때 중소기업청 이외의 타 정부부처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따른 신청 및 허가와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조정 필수적으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잠정적인 '2030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1차, 2차, 3차 산업의 GRDP 비중인 13.9%, 3.1%, 83%에서 2030년도에는 10%, 10%, 80%로 산업구조로 재편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차 산업은 친환경·고품질과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2차 산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조선·해양산업같은 모기업 유치로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계열화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욱 생산성 있는 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난립되는 여행업체나 건설업체의 구조 조정 및 대형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물류 유통의 획기적인 개혁 및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칭 '제주물류·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 가격의 물류원가 제공이 절실하다. 제주의 지정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류, 유통의 문제점을 개별 산업별로 접근하지 말고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저렴한 물류원가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해외 운송시간 단축 및 감귤 품질 및 유통량 통제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산관학 공동협약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스타화 정책이 필요하다. 도청 기업지원과, 중소기업과 관련부서, 지역 대형 유통매장과 지역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개최하고 심사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자격 부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망을 통해 전국 판로의 길을 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흡쇼핑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제주 중소기업 생산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칭 '제주 제품 스페셜 아워'를 마련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관학 협력을 통한 창업, 사후경영컨설팅, 기술이전 및 우수제품개발이 필요하다. 기업·대학(연구소)·(지방)정부 사이에서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Cluster 형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 중소기업 창업정책은 창업의 양보다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인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 민간 창업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의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활성화하고, 자영업 과잉해소를 위한 업종전환 활성화 및 경영자에 대한 선진 경영의식 강화교육도 필요하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0%'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법인세율 12% 인하는 기존 제주 지역 사업체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중·대기업에 혜택이 있고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 세율 인상 효과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율 '0%'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일곱째, 맞춤형 중소기업인력을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과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에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를 지원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관련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종래 획일적인 기능인력 양성 대신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전문 인력의 조기육성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신용보증제도와

의 중복 등을 이유로 매년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대부분은 제도권내 금융조달이 어려우므로 오히려 지원규모를 확대'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 초에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출억제 정책시행으로 제주 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주 신용보증재단의 자금 규모는 2007년 93억원이 증액이 되어 출연재산이 185억에서 278억으로 영세업체의 자금 조달에 큰 일조를 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편이다.

제주중소기업의 현실은 전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외에도 제주의 지역적, 경제적 특이성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어 타 지역의 중소기업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필히 조정하여야 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유통에 대한 혁신 및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희, “중소기업의 발전 비전과 정책발향”, 제주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상 토론회, 2008.
- 김동욱,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상 토론회, 2008.
-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2003.
- 이종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9집 제2호, 2006.
-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 “2006년 제주지역 기업경영분석”,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Policies for Small and Midium Enterpris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eju)

Kim, Dong-wuk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Cheju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situation and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eju).

SMEs in Jeju as well as in Korea occupy high ratio of the nation's economy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 economy. In addition, Jeju Government has carried out various support for small and midium size enterprises. However, effect of the policy might not be realized. A lot of obstructions to development of SMEs in Jeju still remain. Marketing, logistics and tax incentives systems are still in weak state. The paper discusses about the above problems and suggests SMEs policies to activate SMEs in Jeju.

Key words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s SMEs, structure for SMEs, SMEs policy